

사회

공무원에게만 손 벌리는 정치기탁금

광주선관위, 작년 市·구청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논란

모금액 90% 공무원·농협... 시민참여 취지 무색

광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정치자금 기탁금(정치기탁금)을 모금하면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은 선거직 기관장들이 재직하고 있어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또 지난해 모금액의 90% 이상이 광주지역 공무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기탁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에게 소액 기탁금 제도를 알려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크게 무색해지고 있다.

2일 광주시선관위와 5개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광

주시와 5개 자치구를 비롯해 농협과 우체국, 각급 학교에 '공무원 등의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다양한 정치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라는 취지 아래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또 지난해 모금액의 90% 이상이 광주지역 공무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기탁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에게 소액 기탁금 제도를 알려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크게 무색해지고 있다.

2일 광주시선관위와 5개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광

이 재직하는 공공기관들은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자치구는 지난해 '목표'를 정해 모금에 나섰다.

이 같은 결과 지난해 모금된 정치기탁금 2억3207만원 가운데 84.2%인 1억9532만원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교육청이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2310만원)도 광주지역 일선 농협에서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기탁자의 경우는 대부분 선관위 직원의 지인들로 나타났다.

서구선관위의 경우는 지난해 모금액 2682만원 중 2515만원을 서구청에서, 광주시선관위의 경우는 전체 모금액 9572만원 중 8999만원을 시청(7629만원)과 시교육청(1376만원)으로부터 모금했다. 반면 청장이

공직이었던 동구청장은 모금을 하지 않았으며, 동구선관위의 모금액도 '0'원이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해마다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면 6급 이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기탁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기관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목표까지 정해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 제도 자체에 강제성이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들은 기부시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는 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동 성범죄자 16% 범행전 음란물 시청”

범무부 형사정책연결 결과

아동음란물과 아동 대상 성범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게 의뢰해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전과 및 범죄발생 요인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비율은 아동 성범죄자가 16%로 일반 성범죄자의 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 역시 아동 성범죄자 13.7%, 일반 성범죄자

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성범죄자 전체로 봤을 때 아동·폭력 음란물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인 성인 음란물에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인이 77.5%로 성범죄자(64.9%)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하지만 아동·폭력 음란물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각각 5.9%, 11.8%만 반응을 보인 반면 성범죄자들은 각각 10.2%, 17.1%로 2배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아동 음란물 시청이 폭력·가학적인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하면 성범죄 행위의 전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필뉴스



시무식 대신 '사랑의 헌혈'

2일 오전 육군 31사단에서 열린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31사단은 시무식을 대신해 박빙기 사단장과 장병들이 참여하는 헌혈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료공장 불·기름찌꺼기 제거업체 폭발

전남서 잇단 화재사고

전남지역 곳곳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일 오전 9시25분께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의 한 사료공장에서 동물성 기름을 배합하는 작업도중 갑자기 화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정모(29)씨 등 2명이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료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동물성 기름에 불이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방안에 있던 김모(40)씨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도 여주시 주삼동 한 기름찌꺼기 제거업체에서 이상고압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서모(47)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불로 가열해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영암=문병선기자 moon@

“여수 금고털이범·경찰 2008년 금은방도 텀 듯”

전남경찰, 미제사건 5건 연루 여부도 수사

귀금속 도매상 계좌 압수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경찰관 등의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절도범 박모(45)씨와 공범인 경찰관 김모(45) 경사가 지난 2008년 발생한 여수시 학동 모금은행 금고털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입은 여수 모금은행 주인 김모씨와 한동안 절친하게 지냈던 절도범 박씨, 김 경사 등이 옆 건물 식당 벽을 타고 올라가 전장으로 침입, 금은방 금고에서 6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은방 주인 김씨에게 박씨와 김 경사를 소개해 준 귀금속 중간도매상 이모(여·47)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거래하던 귀금속 회사에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여수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족적을 확보해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박씨 집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박씨가 영장도 없이 불법 수사를 했다며 인권위에 경찰을 제소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김 경사는 지난해 12월9일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금고에서 5200여 만원을, 지난 2005년 6월에는 여수 미평동 기업은행 365코너 현금저금기에서 1400여 만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와 김 경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여수에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금고털이 5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암벽등반을 잘해 범행에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귀금속 중간도매상인 이씨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금융계좌와 통신 등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영광원전 6호기도 가동 재개

지난 31일부터 다시 가동된 영광원전 5호기에 이어 6호기도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2일 정기감사 중이던 영광 6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5·6호기(100만kW급) 모두가 가동을 재개하면서 겨울철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김대성기자 bigkim@

만취 30대 출동 경찰에 행패

○새해 벽두부터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 이 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안모(3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내가 해준 게 뭐냐”며 폭언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영하의 날씨에 사고라도 당할까봐 조치를 취한 것인데 경찰을 폭행해 처벌받을 처지가 됐다”고 한마디.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2013년도 제1차 압류재산 공매공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관리번호	소재지	용도	종별	수량	단위	대략예정가격
2012-13380-001	광주광역시 관산구 신상동 1108-1 신가부영아파트 제112동 제16층 제1603호	아파트	대(지분)	44.77	㎡	152,000
2012-17095-001	전라남도 순천시 덕물동 653-2 외 1필지 우성아파트 제106동 제210호	아파트	대(지분)	35.39	㎡	78,000
2012-15571-003	전라남도 담양군 삼정면 용주리 720-26	단독주택	대	223.00	㎡	40,790
2012-14546-003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44-598	주택 및 점포	대	113.00	㎡	84,988
2012-16445-00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5-3 삼성연립 제1층 제102호	점포상가	대(지분)	30.79	㎡	38,500
2012-17903-001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398	대	대(지분)	186.33	㎡	33,540
2012-09500-001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9	임야	임야(지분)	3,804.00	㎡	24,726
2012-14621-001	전라남도 영광군 대이면 홍곡리 산28-19	임야	임야	1,828.00	㎡	11,882
2012-13294-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	임야	임야(지분)	2,053.00	㎡	16,424
2012-16854-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363-16	임야	임야(지분)	6,470.78	㎡	71,179
2012-13239-001	광주광역시 관산구 도산동 981	전	전	1,638.00	㎡	211,302
2012-11609-001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혁령리 332-1	전	전	1,911.00	㎡	21,931
2012-18618-001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759-1	전	전	876.00	㎡	26,280
2012-17277-0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회도리 2296-1	전	전	3,193.00	㎡	47,895
2012-13239-002	광주광역시 관산구 송정동 892-9	답	답	28.00	㎡	12,068
2012-18451-001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653-11	답	답	928.00	㎡	13,920
2012-07857-001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1223	답	답(지분)	2,053.45	㎡	21,356
2012-14469-001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2023-7	답	답	3,213.00	㎡	29,239
2012-14469-002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2023-8	답	답	6,793.00	㎡	61,817
2012-17904-001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88-2	답	답	1,090.00	㎡	19,620
2011-10808-00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령리 452	답(지분)	답	592.50	㎡	29,625
2012-18219-004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산정리 962,1169-1,1169-3	기타토지	전	565.00	㎡	22,148
			답	1,458.00	㎡	
			답	447.00	㎡	
2012-13176-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196-2, 1197-1	기타토지	전(지분)	479.25	㎡	17,058
			대(지분)	279.75	㎡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정서코칭"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1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1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2월 2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 제출서류: 입학원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교육비: 28만원(자격증비 별도: 정서코칭 2급 5만원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대학생, 목회자 부부 등록비 특별 장학혜택
입금계좌: >>>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비 교육비 5만원 할인혜택(단, 중복할인 불가)

■ 특 전: 3단계 교육 후 보수교육(4시간+4회) 이수시 아동가족심리상담사2급자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취득
*수강료, 자격증비 별도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36 교차로 (062)605-1112, 1063

후원 | febc 광주동맹방송 www.febc.net
광주광역시 서구 칠동로 1209-2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1월 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